경기도의회
vol. 298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경기도의회

Contents

vol.298

발행처
경기도의회

발행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편집인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발간일
2026년 8월 10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홍보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문의 전화 031-8008-7123

제작
경성문화사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우가 읽어주는 e-book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만나보세요.
www.ggc.go.kr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14


66


69

의정의 길

06 **의장 인사말**

08 **부의장 인사말**

10 **교섭단체 대표의원 인사말**

12 **의회 소식**

16 **제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54 **우리 지역 도의원**



삶의 길

64 **경기 지하철 나들이**
초지역에서 경기도미술관까지

68 **휠체어로 떠나는 여행**
두 바퀴로 만난 2만 년의 시간

72 **의정 웹소설**
수요일 급식표의 빈칸

76 **당신을 기억합니다**
말없이 견딘 세월, 이젠 편히 쉬시길

78 **건강 100년 노트**
나도 모르게 줄어드는 뼈의 힘, 골다공증

80 **천천히, 디지털**
스마트폰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82 **선조의 하루, 나의 하루**
주막에서 카페까지 쉼의 변천사

86 **응답하라 경기**
옷으로 시대를 말하다

88 **[웹툰] 의회툰**
31개의 지역, 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결정

90 **경기 문화 한마당**

94 **독자 솜씨 마당**

Chapter 1

의정의 길

새로운 4년,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깊이 듣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도민 삶에 힘이 되는 제12대 의회로



"의회의 주인은 언제나 도민인 만큼,
삶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찾게되는 의회,
기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책임의 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이 듣고 조정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경기도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교통과 주거, 돌봄과 교육, 지역 간 격차, 미래산업과 일자리 문제까지 도민의 삶을 둘러싼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경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더 유능해야 합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조례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보다 일로 평가받겠습니다.

의회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도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아직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치입법권과 조직·예산의 자율성이 뒷받침될 때 의회는 도민의 복잡한 현안을 더 빠르고 책임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의회 스스로도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지난 의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바꿔야 할 숙제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청렴을 의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고,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도민 앞에 서겠습니다. 권한을 말하기 전에 신뢰를 먼저 세우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건강한 긴장 속에서 협력하겠습니다. 민선 9기 도정의 성공은 곧 1,420만 도민의 성공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민께 필요한 정책은 힘 있게 뒷받침하되, 예산과 정책이 도민의 뜻에 맞게 추진되는지는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도민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바로잡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의회의 주인입니다. 응원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민생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도민께서 '의회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8월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도민의 삶 가까이,
민생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은정입니다. 경기도의회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의장이라는 소임 앞에서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경기침체와 복합 위기로 도민의 삶이 녹록지 않은 지금, 경기도의회는 거창한 구호보다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절실한 바람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일 잘하는 의회',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 더 든든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늘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여정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고 은 정**

"도민에게는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 더하는 종합비타민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김미숙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로 살아오며 저는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약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중한 경험을 이제는 의정활동에 담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힘이 되는 부의장이 되고자 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작은 불편과 소박한 바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답을 찾아 167명 의원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의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종합비타민 같은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지칠 때 힘이 되고,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며, 기쁜 순간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더 행복한 경기도, 더 신뢰받는 경기도의회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 미 숙**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광률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167석 중 144석을 차지한 압도적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144명 의원이 하나가 돼 민생과 책임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민생을 위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도민을 바라보며 '민생'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같은 당 추미애 지사와는 더불어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빛나는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한 도민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강한 더불어민주당, 더 유능한 경기도의회, 그리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 144명 의원은 도민의 손을 꼭 잡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 광 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167명 의원 모두는 1,420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에 매진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나서야 하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합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교섭단체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원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야당'의 면모를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서 도민과의 접점을 늘림으로써 이를 토대 삼아 현장감과 속도감을 두루 갖춘 '국민의힘표' 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발로 뛰어 만든 조례가 도민의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품질 향상에 힘쓰는 한편,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재가동된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협치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일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의 힘찬 여정을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민생의회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 성 환



"강한 야당을 만들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본격화



남종섭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위해 한목소리 내야”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본격화했다. 남종섭 의장은 7월 22일 충청북도의회를 찾아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북·세종·대전광역시의회 의장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종섭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을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 앞장

고은정 부의장, “여성의 경험이 정책으로 이어져야”



고은정 부의장(더민주, 고양10)은 7월 21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1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도내 여성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성평등한 경기 실현의 의지를 밝혔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평등한 경기, 여성의 힘으로!’를 주제로 도내 여성 지도자와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은정 부의장은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고은정 부의장은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과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존중받고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더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경기도의회도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출범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 등 총 13명은 7월 2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발족식과 첫 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전국 지방의회 및 국회·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크게 뛸 수 있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보통합 성공 위한 보육 현장 목소리 경청

김미숙 부의장, “유보통합은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위한 미래의 약속”



김미숙 부의장(더민주, 군포3)은 7월 21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경기도형 유보통합,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영유아 교육·돌봄 환경 개선과 보육 예산의 방향, 유보통합정책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미숙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제도 통합을 넘어 모든 아이가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약속”이라며 “보육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현충탑 참배로 의정활동 시작



“도민 위한 민생 중심 의회 다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7월 20일 수원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의정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7월 16일 원 구성을 마친 의장단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고은정 부의장(더민주, 고양10), 김미숙 부의장(더민주, 군포3) 등 신임 의장단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 및 상임위원장단, 수원 지역구 도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남종섭 의장은 “167명 의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임 의장단, 사무처 직원들과 첫 상견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 함께 만들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7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과 고은정 부의장(더민주, 고양10), 김미숙 부의장(더민주, 군포3),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해 제12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의장단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가는 길이 곧 지방의회의 역사가 된다”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의회를 만드는 여정에 모두 함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2026년도 청렴 서약식’ 개최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7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의회 청렴실천 약속을 위한 청렴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서약식은 도의회 홍보대사인 유승민 씨의 사회로,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이 청렴 서약서를 대표로 낭독하고, 참석 의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청렴 서약서 서명 후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제창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의회는 반부패·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제12대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청렴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본격 추진

“신뢰받는 의회 위한 조직문화 개선”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6년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진단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진단은 조직의 성희롱 방지 대응체계와 예방 활동, 구성원 인식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직 특성에 맞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회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더민주, 용인3)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조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민의 삶
가까이,
13개의 약속

도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한
의원들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됩니다.

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효율적 의회 운영과 의정 지원체계 강화

- 의회 사무처와 도·교육청 등 주요 부서 업무보고 청취
- 모바일 의원증 도입 등 의정 지원 제도 정비

의회운영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한별)가 소관 기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효율적 의회 운영과 의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393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과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했다. 이어 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비서실,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기관별 현안과 추진 계획을 살폈다. 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동시에 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한별 위원장(더민주, 수원4)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위원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2.)



※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의원 인사말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을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의원의 다짐을 모아 전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 현안 점검

- 기획조정실·경기연구원 등 업무보고 실시
-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정책 추진 방향 논의

기획재정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석을 배정한 뒤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다. 특히 각 실·국과 산하기관의 업무 추진 계획이 도정 전반의 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살피고, 사업별 목표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도 확인했다.

위원들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재정 현황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형식적 감액 추경이 아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중심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과 경기연구원 운영 개선, 공공투자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창식 위원장(더민주, 남양주5)은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 방향을 설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 재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라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1.)

기획재정위원회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민생의 답을 정책으로 연결해 신뢰받는 책임 있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김창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유난히 더운 올여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손희정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파주2)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맞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따뜻한 공감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며, 더 나은 경기도와 도민의 일상을 위해 뛰겠습니다.



윤종영 부위원장

(국민의힘, 연천)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강한 책임감으로 더 큰 경기 북부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8)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맞아 초심과 책임감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도민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1)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고양과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한슬 의원

(국민의힘, 비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투명한 재정과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신뢰받는 의정을 펼치고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도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따뜻하고 든든한 생활 정치로 경기도에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심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2)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과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으로 동두천과 경기 북부의 새 변화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2)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책임 있게 답을 찾겠습니다.



이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5)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재정과 산업의 해법을 찾아 삶에 힘이 될 정책과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부터 책임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3)

제12대 경기도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일상에 힘이 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3)

도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민생을 세심히 챙기며,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한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큰 책무로 삼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의회, 책임 있는 의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경기도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

- 경제실·노동국 등 업무보고로 의정활동 시작
- 소상공인 지원·일자리 창출·노동환경 개선 방안 논의

경제노동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가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소관 실·국과 함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관별 사업이 도민과 기업,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실행력과 협업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태환 위원장(더민주, 의왕2)은 “경기 침체 여파로 향후 예산 운용에 여유가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돌파구를 지혜롭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0.)

경제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과 노동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왕2)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이 성장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장윤정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3)

사랑하는 안산시민과 1,4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에 '꽃'이 활짝! 모두가 "어머나!"라는 환호성을 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최민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과 경제를 살피겠습니다. 광명의 발전과 경기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준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4)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6)

고양시 재선의 검증된 경험으로 경기도를 위해 뛰겠습니다. '일머리 있는 사람'이 첫날부터 실천하는 책임 의정, 확실한 도정의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송연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창업 현장에서 배운 도전 정신으로 도민 곁에서 뛰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기도, 일자리와 혁신이 넘치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3)

경기도민의 삶이 신명 나도록 뛰겠습니다! 민생경제 구석구석을 살피는 꼼꼼한 일꾼, 현장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명쾌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오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2)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유수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1)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민생을 살피고, 경기 북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잇겠습니다.



이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9)

사회적경제와 좋은 일자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정용한 의원
(국민의힘, 성남8)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현장의 변화로 성과를 보여 드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함께 웃으며,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최보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1)

현장에서 쌓은 경제·노동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유능한 민생 일꾼이 되겠습니다.



최상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

"도민은 최고급, 행정은 최상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입니다.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최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을, 중소기업에는 성장의 디딤돌을,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1)

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노동과 일자리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일하는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본격화

- 안전관리실·소방재난본부 등 업무보고로 활동 시작
- 재난 대응·자치경찰·소방안전 정책 집중 점검

안전행정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가 첫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안전행정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안전관리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등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을 점검하며 재난안전정책 전반을 살폈다.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상황, 자치경찰제 운영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경석 위원장(더민주, 평택1)은 “재난 대응과 소방안전, 자치행정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2.)

안전행정위원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 안심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양경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1)

도민의 뜻을 깊이 새기고,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와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7)

그동안 지역사회 주거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윤충식 부위원장
(국민의힘, 포천1)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결과를 증명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받는 정책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7)

도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과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 헌신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웃처럼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6)

다시 맡겨 주신 두 번째 임기, 깊어진 경험과 무거운 책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천의 목소리를 경기도의 변화로 잇고, 주민의 일상을 바꾸겠습니다.



김회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6)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작한 정치를 함께 이어갑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세심하게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보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5)

젊고 검증된 의정 경험으로 다시 도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과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2)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이 안심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4)

군포의 작은 목소리를 경기도의 정책으로 잇겠습니다. 현장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권익이 일상에서 체감되는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국민의힘, 가평)

35년 현장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8)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실용 정치로 현장을 바꾸고, 도민과 고양시민이 안심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철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8)

안전과 복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정종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7)

도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 안전과 재난 예방을 살피겠습니다. 공정한 제도와 신뢰받는 행정으로 안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 추진 본격화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주요 업무보고 실시
-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문화정책 강화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채신덕)는 7월 20일과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서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신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진형 부위원장(더민주, 화성7)과 이오수 부위원장(국힘, 수원9)을 선임하고 위원석을 배정했으며,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7월 20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문화정책과와 종교협력과·콘텐츠산업과·예술정책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경기문화재단·한국도자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경기아트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체육진흥과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관광공사 등의 현안을 살폈다.

채신덕 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문화와 예술, 체육과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기도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문화가 특정 계층의 혜택이 아닌 모든 도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일상 속 행복이 되도록,
도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로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채신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포2)

문화, 예술, 체육, 관광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큰 행복과 더 나은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진형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7)

문화가 있는 일상은 삶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화성시와 경기도 곳곳에 문화의 온기가 고루 닿도록,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정성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오수 부위원장

(국민의힘, 수원9)

문화, 예술이 지역에 일상화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수원시와 경기도 곳곳에 예술과 문화가 스며들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문화, 체육, 관광이 살아 있는 영통과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의원 이병숙이 늘 앞장서겠다고 다짐합니다.



김승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남양주의 강점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키우겠습니다. 현장을 살피며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안시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예술을 도민 모두의 일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어디서나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젊은 감각과 섬세한 시선으로 힘있게 뛰겠습니다.



이미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도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을 찾으며 관광으로 쉬어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정, 도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열겠습니다.



이종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5)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
보내주신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지혜 의원
(국민의힘, 비례)

문화는 모두가 누려야 할 일상의
행복입니다. 도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체감하는 문화정책과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예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2)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새기며 문화, 체육, 관광이 살아 있는
오산과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의원
전예슬이 언제나 앞장서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채명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5)

문화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습니다. 용인과 경기도 곳곳에
예술과 문화가 고루 스며들고 도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4)

문화는 도시에 품격을 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고양과
경기도 곳곳에 예술과 문화가 고루
흐르도록 정성을 다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5)

문화가 있는 일상은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소사와 경기도 곳곳에 예술과
문화가 고루 스며들도록 도민의 문화
향유를 정성껏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규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4)

존경하는 평택 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 문화와 체육, 관광의 힘으로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황은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7)

제12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황은화,
뚜벅뚜벅 함께 걷겠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 정책 점검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업기술원 등 소관 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 농업예산 확보·산림복지 강화 등 현안 집중 논의

농정해양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서광범)가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마치고 농어업과 해양 분야 주요 정책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이은미 부위원장(더민주, 안산5)과 김성남 부위원장(국힘, 포천2)를 선임하고 의석을 배정한 데 이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를 통해 산림환경정책과 산림복지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의 지속 추진, 농어업인 소득 안정, 먹거리 안전 강화 등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마련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식량안보 강화를 주문했으며,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산림복지 서비스 운영 내실화, 바다향기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서광범 위원장(국힘, 여주1)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0.)

농정해양위원회

농어민에게는 희망을, 도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전하는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서광범 위원장
(국민의힘, 여주1)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어민에게는 희망을, 도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실천하는 의정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은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5)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성남 부위원장
(국민의힘, 포천2)

농민이 행복해야 경기도가 행복합니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농가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0)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후변화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3)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기대에 부응하는 바른 의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2)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농어민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김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천2)

농어민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옥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농업에서 시작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으로서 생산자는 웃고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백승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성2)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현장의 지혜를 정책에 담아 농어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1)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가 가장 살기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7)

도민의 삶이 곧 의정의 기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1)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2)

경기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방향 점검

- 복지국·보건건강국 등 주요 업무보고 실시
- 통합돌봄·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가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복지와 보건, 공공의료를 아우르는 핵심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서비스 혁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복지기금의 건전한 운영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동규 위원장(더민주, 안산1)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견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26. 7. 21.)

보건복지위원회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건과 복지의 빈틈을 세심히
살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보건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호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1)

도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며,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은주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

따뜻한 복지, 행복한 동행을 위해 여야 간 협치와 소통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성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4)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선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4)

도민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10)

엔지니어의 냉철한 분석과 부모의 따뜻한 공감을 담겠습니다. 숫자는 정책의 성과를, 사람은 정책의 이유를 말합니다. 데이터로 검증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이건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공공의료와 돌봄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화도·수동 주민과 경기도민이 가까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채정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주1)

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최경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2)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환자 단체 활동으로 다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가까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장애 당사자로서 마주한 일상의 장벽과 37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일자리, 자립과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권태익 의원
(국민의힘, 비례)

26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께 꼭 필요한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경기도민의 곁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차유미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

건강과 복지가 보장되는 선진 사회권 경기도를 위해 현장에서 듣고 살피겠습니다. 기존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한 생활의 작은 불편과 복지의 빈틈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광역교통 현안 집중 점검

- 건설국·교통국 등 주요 업무보고 실시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SOC 투자 방향 논의

건설교통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고찬석)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석을 배정한 데 이어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의 재정 구조 점검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건설·교통 분야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찬석 위원장(더민주, 용인9)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임위 의정활동 성과를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마련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0.)

건설교통위원회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건설·교통 인프라를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고찬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9)

제12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들과 함께 도민 삶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건설·교통·철도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포4)

경기도민과 김포시민 여러분! 풍부한 실무 경험을 살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경청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윤순옥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1)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돼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순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4)

도민 여러분과 함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도민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며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도민이 보내준 신뢰의 무게를 알기에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도민이 걷는 길과 오가는 교통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건설·교통의 변화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김진후 의원
(국민의힘, 비례)

도민 삶과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고, 실질적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 1,420만 경기도민과 노동자를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7)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성복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번째 걸음을 뗍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현장을 살피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챙기겠습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오진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9)

사랑하는 경기도민, 화성시민 여러분! 의정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교통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더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겠습니다.



유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4)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강한 실천력으로 도민의 민원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대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건설·교통 예산은 도민의 출근 편의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지역의 미래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조명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0)

"막힘없는 마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경기도!" 도로와 도민의 답답한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구석구석, 더 안전하고 빠른 길로 도민 삶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채명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8)

도민이 걷고 달리는 길 위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말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안전한 일상과 쾌적한 경기도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주3)

건설과 교통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도민의 일상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한승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6)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 경험과 현장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도시정책·기후환경정책 점검 본격화

-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 등 주요 업무보고 실시
-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논의

도시환경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홍근)가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수자원본부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살폈다. 아울러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자가 설비 인증서(REGO) 발급, 거래 시범사업 협력 업무협약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업무보고에서는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홍근 위원장(더민주, 화성1)은 "의회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며 의정의 성과는 도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위원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1.)

도시환경위원회

쾌적한 도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1)

쾌적한 도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경기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구리2)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주거 안정과 환경보호라는 두 과제를 함께 이루어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

맑고 깨끗한 물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 관리부터 자원 순환체계 구축까지 꼼꼼히 챙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민의 삶을 든든히 지탱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국민의힘, 이천1)

푸른 녹지와 생태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쉼과 여유가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등 쾌적한 환경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첨단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경기도를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유종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도민 행복의 기본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꼼꼼히 살피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4)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맑고 푸른 환경 보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계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5)

도민 여러분의 일상 속 불편함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임유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

경기도 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재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경기도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겠습니다.



장송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7)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 경기도가 그 표준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1)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을 지키며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겠습니다.



지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말씀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해법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2)

멈춤 없는 지역 발전과 균형 잡힌 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약속은 지키고, 변화는 확실하게, 결과로 증명하는 도의원이 되기 위해 행동과 실천으로 도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AI 정책 통합관리·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 AI국·미래성장산업국 등 주요 업무보고 실시
- AI 정책 통합관리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미래과학협력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김태형)가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 AI 정책과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석을 배정한 데 이어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특히 AI 기반 행정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경기도 AI 정책이 부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AI 혁신 클러스터가 공간 조성을 넘어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 위원장(더민주, 화성5)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더욱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상임위원회로 만들어달라는 의원님들의 무거운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며 “여야를 넘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예산을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3.)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와 미래산업의 혁신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5)

AI·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성장이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살피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

비판보다 대안, 구호보다 제도로 답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정책과 성과로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그 시작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실현입니다.



오남석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래산업과 AI가 더 나은 일자리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의 현장을 살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왕1)

3선의 경륜으로 AI와 미래산업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내일을 든든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든든한 선택을 든든한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경기도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전석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3)

도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미래로 연결하는 과학기술과 AI 혁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과 더 큰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창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

오늘의 문제를 넘어 내일의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에 변화를 더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호명되지 못한 이웃을
대변하겠습니다. 거리와 현장에서
약자를 지키는 변함없는 이웃 청년이
되겠습니다.



윤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3)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류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3)

국회, 도청, 정당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미래산업을
꼼꼼히 살펴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오민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1)

하남의 일꾼, 경기도의원
오민용입니다. 도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하남의 미래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서인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청년 대표, 서인하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뛰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국민의힘, 성남5)

AI·반도체를 비롯한 미래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 정책 내실 다진다

- 여성가족국·미래평생교육국 등 주요 업무보고 실시
- 경기여성대회 참석, 여성 화합과 권익 증진 의지 다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가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마치고 여성·가족·평생교육 분야 주요 정책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 미래평생교육국을 비롯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서관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위원들은 여성과 가족, 청년과 청소년, 평생교육, 이민 사회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와 여성·가족 복지 강화, 미래세대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주문했으며, 증가하는 이민 사회 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용성 위원장(더민주, 광명4)은 “여성과 가족, 청년과 청소년, 평생교육과 이민 사회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분야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아 도민 중심의 협치와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과 가족, 돌봄과 평생교육 정책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광명4)

작은 정책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과 한 가정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신미숙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4)

부위원장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여성·가족·청소년·평생교육 정책이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영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4)

재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의 약속을 정책과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4)

배움에는 정년이 없고,
돌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내일을 든든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금종례 의원

(국민의힘, 비례)

3선의 경험과 책임감으로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이주민, 재외동포를 세심히 살피고, 배움과 삶이 이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성기황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2)

도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책임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황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5)

정책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돌봄이 촘촘하고, 배움이 평생 이어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채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6)

가족이 행복하고, 누구나 배움을 이어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진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민 여러분의 기대를 무겁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미래세대, 주민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열겠습니다.



변재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2)

경기도의 내일을 바꾸고 도민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어르신에게 복지를 드리는 희망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최순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여성, 아동, 부모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평생학습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까지 살피는 따듯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박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1)

현장에서 도민에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르신 모두 안심하는 안전망부터 살뜰한 민생까지,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늘 곁에 있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2)

공리공욕(公利公欲)의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겸손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작은 목소리까지 살피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미래 설계에 속도

- 교육감 소속 기획조정실·학교교육국 등 업무보고로 의정활동 개시
- 유보통합·특수교육 등 교육정책 추진 방향 점검

교육기획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국중범)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소속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해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교육행정과 학교교육 전반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

위원들은 제12대 전반기 첫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와 제안을 이어갔다.

국중범 위원장(더민주, 성남4)은 “앞으로 2년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단체 사진(2026. 7. 21.)

교육기획위원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학생이 성장하는 경기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중범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4)

성남의 내일과 경기교육의 도약을 약속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아이들이 꿈을 펼칠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김선희 부위원장

(국민의힘, 용인6)

경기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며, 오직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산1)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는 경기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김경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3)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일하며 여러분의 신뢰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3)

모두를 품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8)

경기도민이 남녀노소, 지역, 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하게 행복할 권리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박은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6)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서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안양의 더 나은 내일과 경기교육의 도약을 약속드립니다. 초심과 겸손한 자세로 현장을 누비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깨어있는 시민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힘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미래세대를 양성하고 도민의 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8)

경기교육의 방향을 꼼꼼히 살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장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리1)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미래를 여는 경기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연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5)

아이들과 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첫 마음 그대로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덧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조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대학입학사정관과 교육청 대입지원관을 거친 교육 전문가로서 의정부와 경기도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며 주민과 온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국민의힘, 비례)

1,420만 경기도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생을 꼼꼼히 챙겨,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더 큰 희망과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운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3)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의 꿈, 교직원의 보람, 학부모의 신뢰가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현장에서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에 힘 싣는다

- 교육청 주요 부서·직속 기관 업무보고 실시
- 학교 신설과 안전교육 등 교육 현안 집중 논의

교육행정 위원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원 구성을 마치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392회 임시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한 데 이어 감사관과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학생교육원·미래과학교육원·국제교육원 등 소관 부서와 직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다. 아울러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받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학교 신설 추진 현황과 학생 안전교육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구체적 추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전교육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민주, 안양1)은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어깨가 무겁지만, 그 무게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며 "경기교육의 주인공은 언제나 학생들인 만큼 지역과 학교에 차별 없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원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6. 7. 20.)

교육행정위원회

학생이 꿈을 키우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경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양1)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교섭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용인11)

무더운 여름,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용인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경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김현석 부위원장

(국민의힘, 과천)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해법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3)

새 동네가 들어서고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이 늘어납니다. 그 웃음 곁에 학교가 늘 함께하도록 더 투명한 현장 중심 교육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3)

여름 햇살 아래 아이들이 자라듯 교육도 아이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배움터를 세심히 살피고 삶을 바꾸는 성과로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심상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1)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배움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하남3)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미래와 하남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민생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윤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2)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늘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성1)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속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소통하며 안성의 발전과 희망찬 경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장경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보육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늘 도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정석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주2)

경기도민 여러분의 부름으로 의정에 첫발을 내디딘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 힘이 되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현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8)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경기도, 그 첫 마음 그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최명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1)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담아내는 생활 정치와 따뜻한 실천 정치로, 교육 현장부터 생활 인프라까지 발로 뛰며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최미금 의원
(국민의힘, 비례)

학생은 배움이 즐겁고, 학부모는 안심하며,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최찬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6)

기초, 광역, 국회를 거치며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1,420만 경기도민과 도정이 막힘없이 통하는 '사통팔달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 2026. 7. 1.~7. 24. 배포된 보도자료 게재



◉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재산권 보호가 우선"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7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현장의 쟁점은 객관적으로 검토하되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염원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기흥 주민 위한 공항버스 노선 신설 추진"

전자영 의원(더민주, 용인4)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 등과 함께 '기흥역 버스 노선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항버스 노선 신설과 경기 편하G버스 도입 등 주민 이동 편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공항버스 신설은 주민들과 한 약속인 만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경기 북부 철도망 확충과 AI산업 육성 필요"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AI국 관계자들과 지역 현안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의정부 SRT 연장과 GTX-C 노선 추진, AI 클러스터 조성 등 경기 북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 북부 철도사업과 AI산업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핵심 과제인 만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



"현덕지구 조성사업,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안계명 의원(더민주, 평택5)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안계명 의원은 "18년간 표류한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북부분원 ✻

◉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



"적극적 소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김지호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7월 1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주민 정담회를 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서 정책이 시작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고양상담소 ✻

◉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고양신사선 국가계획 반영 위해 힘 모아야"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2)은 7월 2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들과 '고양권 철도사업 추진 현황'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고양신사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양신사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평택상담소 *

◉ 양경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1) ◉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
◉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 한규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
◉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 ◉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더민주, 평택1), 김명숙 의원(더민주, 평택2), 김경옥 의원(더민주, 평택3), 한규찬 의원(더민주, 평택4), 안계명 의원(더민주, 평택5), 한승훈 의원(더민주, 평택6)으로 구성된 제12대 평택시 도의원단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제12대 평택시 도의원단은 평택항 개발과 교통망 확충,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등 지역 발전 계획뿐 아니라 지역별 숙원사업도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12대 평택시 도의원단은 "정치의 본질은 주민의 평범한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예산과 정책으로 답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양상담소 *

◉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침수예방사업, 사고 전에 준비하도록"

이채명 의원(더민주, 안양6)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침수예방사업과 하수 맨홀 안전시설 설치 등 재난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체계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안양천 변 좁은 인도, 확장 해법 찾을 것"

최경순 의원(더민주, 안양2)은 7월 1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안양천 변 인도 확장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보행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최경순 의원은 "주민 불편을 줄일 방법을 끝까지 찾아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안양상담소 ✻

◉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



"학생 안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점검 필요"

장민수 의원(더민주, 안양5)은 7월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의회 김서경 의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지역 학교 교육 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민수 의원은 "학교별 환경개선 요구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명상담소 ✻

◉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공공개발로 기업이 또 다른 피해자가 돼선 안 돼"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개발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이전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공공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 오산상담소 ✻

◉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 ◉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생활체육시설, 시민이 필요할 때 공급돼야"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과 전예슬 의원(더민주, 오산2)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정담회를 가졌다. 두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공공시설인 만큼 적기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 이천상담소 ✻

◉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



"지역 발전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과 김인영 의원(더민주, 이천2)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제12대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천시 주요 현안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정당은 다르지만 지역 발전만큼은 한마음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성상담소 ✻

◉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

이주현 의원(더민주, 안성1)은 7월 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관계자들과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현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 ◉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



"반도체산업보다 주민 안전이 먼저"

이주현 의원(더민주, 안성1)과 백승기 의원(더민주, 안성2)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자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지역 현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천 정비사업과 공업용수 방류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두 의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 포천상담소 ✻

◉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 김성남 의원(국힘, 포천2), 최순자 의원(더민주, 비례)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세 의원은 앞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포천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 포천상담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민원 해결과 정책 발굴에도 힘쓸 방침이다. 의원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양평상담소 ✻

◉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 ◉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찾아가는 상담소로 주민 곁에 더 가까이"

윤순옥 의원(국힘, 양평1),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7월 2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찾아가는 양평상담소'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주민 곁에서 직접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연천상담소 ✻

◉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작은 민원도 끝까지 협의해 해결하겠습니다"

윤종영 의원(국힘, 연천)은 7월 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관계 기관과 함께 장기 적치물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 생활 불편과 학교 안전 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종영 의원은 "작은 민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주민이 체감하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언제나 도민 곁에 있습니다!!
지역상담소는?
도민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원과 도민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도민, 공무원, 단체가 도의원과 함께 모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도민을 위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합니다
도의원 업무 공간이 왜 이곳에 있나요?
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누리집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기타 지역상담소 문의 031-8008-7272, 7274

Chapter 2



삶의 2D



좋은 의정은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일,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길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미술관

초지역에서 경기도미술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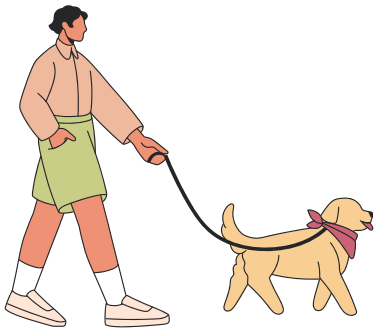
예술과 자연을 잇는 여름 산책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에는 시원한 실내 전시관과 푸른 공원을 함께 둘러보는 여행이 더욱 반갑다. 4호선 초지역에서 출발하는 이번 코스는 경기도미술관과 야외조각공원, 화랑유원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차례로 둘러보는 문화 산책이다.

글 유현경





여행 코스

- 미술·역사·공원을 함께 즐기는 여름 문화 힐링 코스
- **이동 난이도**
  전 구간 평지, 도보 이동 편리

초지역
초지역 4번 출구 → 경기도미술관 방향, 도보 10분, 버스 한 정거장

경기도 미술관
야외조각공원 따라 이동 : 도보 5분

야외 조각공원
화랑유원지 산책길 연결 : 도보 5분

화랑유원지 ·단원각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방향 이동 : 도보 10분

안산산업 역사박물관
인근 카페 거리 이동 : 도보 5~10분

카페 거리
초지역 방향 이동 : 도보 15분

초지역

❶ __ 여름 문화 산책의 시작, 초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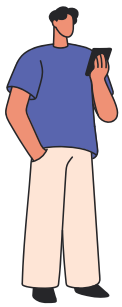
여행은 4호선 초지역에서 시작한다. 역을 나서면 가까이에 넓은 공원과 문화시설이 있어 여유로운 산책이 이어진다. 경기도미술관과 화랑유원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한곳에 자리해 무더운 여름에도 긴 이동 없이 둘러보기 좋다. 역사 안에 냉방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춰 잠시 쉬어가기도 편리하다.

tip 4번 출구 이용. 역사 내 냉방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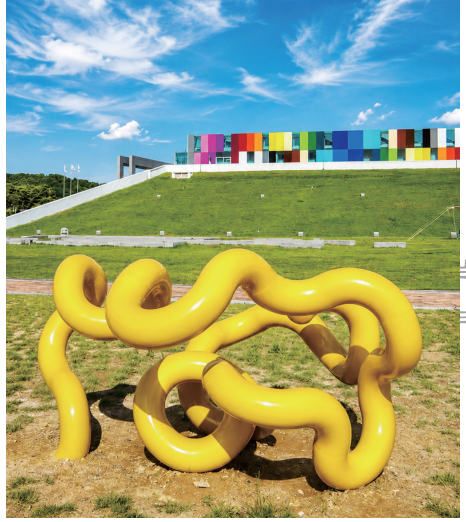
❷ __ 시원한 전시 공간, 경기도미술관

가장 먼저 찾을 곳은 경기도미술관이다. 시원한 전시실에서는 현대미술 기획전과 다양한 소장품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넓고 쾌적한 공간 덕분에 더위를 잠시 잊고 작품에 집중하기 좋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야외조각공원으로 나가 실내와 야외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곳의 매력이다.

tip 기획전 일정 확인 후 방문하면 더욱 알차다. 카페와 뮤지엄 숍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야외조각공원

❸ ___ 숲속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전시, 야외조각공원

미술관 밖에는 다양한 조각 작품이 공원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걸으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미술관에서 이어진 예술의 여운이 자연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벤치와 쉼터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기 좋으며, 사진을 남기기에도 그만인 장소다.

tip 나무 그늘이 많아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걷기 좋다.



❹ ___ 화랑유원지의 숲과 호수, 그리고 단원각

야외조각공원을 지나면 화랑유원지가 나온다. 넓은 잔디와 숲길, 호수가 어우러진 안산의 대표 공원으로, 산책만으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전통 누각 '단원각'을 만난다. 잠시 앉아 바람을 느끼며 땀을 식히기 좋은 곳이

▼ 단원각





다. 전통 건축과 현대적 공원 풍경이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tip 단원각은 화랑유원지의 대표 전망 포인트다.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겨 보자.

❺ ___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만나는 도시의 성장 이야기

화랑유원지와 맞닿아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산업도시 안산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산업기술의 발전과 도시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로 살펴볼 수 있다. 실내 전시관이라 더위를 피해 쉬어가기에도 좋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볼거리가 풍성하다.

tip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미리 휴관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안산산업역사박물관

▼ 화랑유원지



❻ ___ 카페에서 즐기는 여름 한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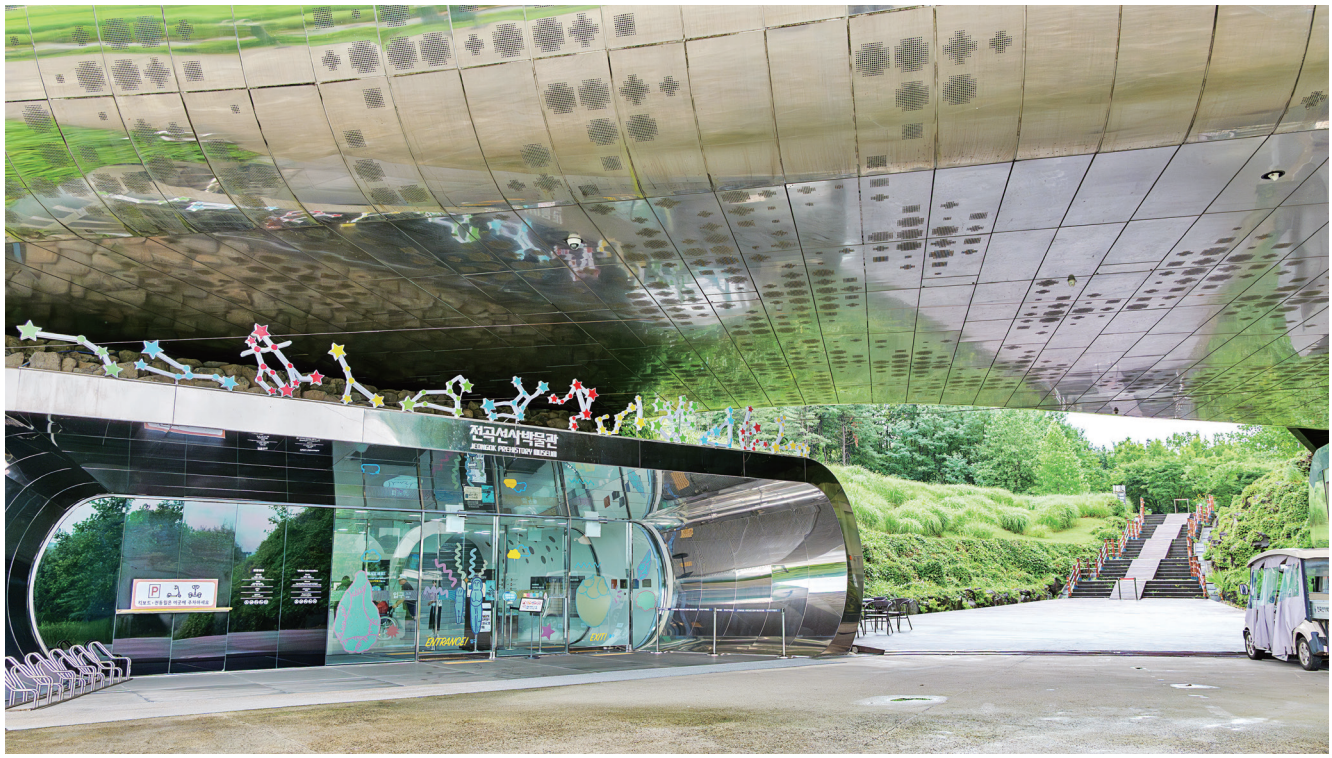
산책의 마지막은 초지역 인근 카페에서 마무리해 보자.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오늘 둘러본 전시와 공원의 풍경을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준비해 공원에서 여유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주말 오후에는 다소 붐빌 수 있으니 오전이나 이른 오후 방문을 권한다.

❼ ___ 실내와 야외를 함께 즐기는 여름 하루

카페를 나와 초지역으로 돌아오면 이번 문화 산책이 마무리된다. 시원한 미술관과 산업역사박물관에서 더위를 피하고, 야외조각공원과 화랑유원지에서는 숲과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예술과 자연, 그리고 산업도시 안산의 역사를 한 번에 즐기는 이번 코스는 한여름에도 부담 없이 떠나기 좋은 여름 문화 여행으로 제격이다.

tip 총소요 시간 약 4~5시간. 실내 관람과 야외 산책이 균형을 이룬다.



두 바퀴로 만난 2만 년의 시간





혼자서는 문턱 하나 넘기 쉽지 않던 이영순 씨가 오늘은 마음 편히 바퀴를 굴렸다. 휠체어에 몸을 실은 이영순 씨가 향한 곳은 연천의 전곡선사박물관과 임진강자연센터. 문턱도 계단도 붙잡지 않은 이 두 공간에서 이영순 씨는 구석기시대의 시간이 잠든 땅과 그 땅을 적시며 흐르는 강의 생태를 두 바퀴로 가로지르며 2만 년의 시간을 만났다.

글 강진우 **사진** 고평주

QR코드를 검색하면 이영순 도민님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전곡선사박물관 |
돌에 새겨진 시간

큰비가 내린 뒤 잠시 하늘이 주춤해진 틈을 타 일정이 잡혔다. 작년에 다리를 크게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이영순 씨는 휠체어로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큰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인지 이제는 잘 안다며 잠시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첫 코스로 만난 전곡선사박물관에는 넓은 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오르내리는 데 걸림이 없었다. "천천히 마음껏 보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그 한마디에 이영순 씨는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렸다.

1978년, 이곳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세계 구석기 연구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 2011년 그 유적지 위에 세워진 전곡선사박물관은 원시 생명체의 곡선을 닮은 은빛 건물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2층 전시실 초입,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코너 앞에서 이영순 씨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참 많아요. 한탄강이나 연천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참 안타깝죠."

전곡선사박물관은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실물 유물과 정교한 복원 모형, 체험형 콘텐츠까지 알차게 마련되어 있었다. 해외에서 발견된 동굴벽화를 실물 크기로 재현해 둔 공간에 이어 매머드 뼈로 지은 움집 모형을 둘러보고, 표정과 피붓결까지 생생하게 되살려 낸 동물 모형 앞에서 이영순 씨는 동그래진 눈으로 호기심을 내비쳤다.

"독수리가 정말 커다랗잖아요. 옛날에는 아기들이 밖에서 놀다가 독수리한테 잡혀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뒤이어 마주한 곳은 개관 15주년을 맞아 새롭게 꾸며진 '땅속의 땅, 전곡' 코너였다. 아파트를 짓다 우연히 세상에 드러난 전곡리 85-12번지 유적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만 2,418점의 석기가 확인됐다는 설명판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주먹도끼 전시대였다.

"이걸로 요리도 하고, 뭘 만들기도 했겠죠. 저희 자랄 때도 도구가 마땅히 없어 돌로 찧고 자르고 그랬거든요. 칼이 없으니까."

돌 하나로 살림을 꾸리던 먼 옛사람의 손끝과 도구 없이 살림을 이어온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 앞에서 가만히 포개지는 듯했다.

| 임진강자연센터 |

강이 만든 땅을 걷다

두 번째 여행지 임진강자연센터에 들어선 이영순 씨는 새로 지어진 건물의 산뜻한 분위기부터 눈여겨보았다. 2025년 문을 연 이곳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이중으로 이름을 올린, 연천의 자연이 한자리에 모인 지질생태 전시관이다.



✱ 여행지 Information

◉ 전곡선사박물관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에 자리한 박물관이다. 구석기시대 석기 유물과 정교한 고인류 복원 모형, 매머드 화석 등 자연사 유물을 만날 수 있어 2만 년 전 시간 여행을 떠나기에 그만이다.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031-830-5600

◉ 임진강자연센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소개하는 지질생태 전시관이다. 연천의 지질과 생태, 역사문화를 한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전망대에서는 임진강 주상절리 절경까지 눈에 담긴다.

연천군 미산면 마동로196번길 226-23
070-4135-0931







'물결이 만든 땅, 연천'이라는 문구로 문을 여는 전시관은 이 땅의 지질이 빚어진 과정과 연천의 남다른 위상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었다. 북한 오리산 일대의 화산활동으로 생긴 용암이 철원과 포천을 지나 이곳 임진강 인근까지 흘러왔다는 설명에 이영순 씨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네요" 하며 눈을 크게 떴다.

'풍요로운 생태환경' 코너에서는 보개산과 고대산의 사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발견됐다는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겨울이면 두루미가 내려앉는다는 장군여울탐조대,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재인폭포까지 하나씩 짚어가며 살펴보았다.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임진강에 도리어 귀한 생명들이 깃들었다는 이야기가 새삼 정겹게 다가왔다.

옆에 놓인 터치스크린 앞에서 해설사가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하고 권하자, 이영순 씨는 화면을 짚어 '하천 생물 정보'를 열어보았다. 물거미며 두루미, 삵, 저어새 같은 이름이 뜰 때마다 반가운 듯 직접 손을 뻗었다.

전시를 다 둘러본 뒤에는 포토존에 들러 아우라지베개용암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다. QR코드를 찍어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내려받자 방금 찍은 장면이 손안에 담겼다. 2층으로 올라가 애니메이션까지 본 이영순 씨는 하루를 돌아보며 소감을 전했다.

"처음 온 곳인데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구경하기 좋았고, 박물관이나 자연센터를 정말 잘 꾸며놨네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요."

문턱도 계단도 두렵지 않았던 하루 동안 이영순 씨는 발밑에 잠든 2만 년의 시간도, 강을 따라 흐르는 생명의 온기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다. 곁에 두고도 잘 몰랐던 연천의 깊이를 두 바퀴로 더듬은 하루를 보내자 조금씩 달라지는 동네 풍경이 더 정겹고 반가워졌다.







수요일 급식표의 빈칸

평범한 학교 급식표의 작은 빈칸 하나. 그 안에 담긴 현장의 어려움과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글 강나은 **일러스트** 챗GPT

※ 알림

이 소설은 작가의 창작 픽션으로, 상황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의 실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화 사라진 메뉴 한 줄

매달 첫째 날, 서윤은 급식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형광펜부터 찾았다.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메뉴에는 스티커를 붙였다. 스티커를 받은 메뉴는 돈가스, 미역국, 그리고 수요일마다 나오는 제철 과일이었다. 서윤은 특히 제철 과일이라고 적혀 있는 수요일 마지막 줄에는 항상 과일 스티커를 붙였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딸기가 되었다가, 참외가 되었다가, 감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칸이 비어 있었다.

"어? 여기 원래 과일 있었는데."

서윤은 급식표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빵으로 바뀐 거 아니야?"

짝꿍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서윤도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수요일 마지막 줄은 계속 비어 있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자 과일은 없어지고, 대신 밥이 조금 더 많이 담겼다.

"오늘은 과일 없어요?"

서윤이 배식대 앞에서 물었다.

"오늘은 다른 걸로 대신했어."

영양 교사 윤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다정한 그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그날 이후로 급식표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수요일마다 제철 과일이라고 적혀 있었던 한 줄을 찾는 습관이 생겼다.

2화 장부 위의 숫자

윤하의 책상 위에는 매달 두 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였다. 한 장은 영양 기준표, 다른 한 장은 식자재 단가표였다. 두 장을 겹쳐 보면 매번 어느 한쪽이 남고, 또 어느 한쪽은 모자랐다.

"어? 여기 원래 과일 있었는데."
"오늘은 과일 없어요?"



"이번 달도 과일 단가가 올랐네요."
행정실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철 과일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다른 식재료에서 줄이지 않으면 이번 달도 기준을 못 맞춰요."
윤하는 볼펜 끝으로 표를 톡톡 두드렸다. 국이나 반찬 가짓수를 줄이면 아이들이 바로 알아챘다. 결국 가장 마지막에, 가장 적게 티 나는 자리부터 지우게 되는 것은 늘 같은 칸이었다. 하지만 그 칸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윤하도 모르지 않았다.
"이거, 학교 자체로는 더 못 버텨요."
행정실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원청에 현장 부담 자료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매달 이런 식으로 메뉴 하나씩 빠지는 게 우리 학교만의 일도 아닐 거고요."
그렇게 정리된 자료는 학교 담장을 넘어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교육청 예산편성 자료 속으로 옮겨 갔다. 필통 속 급식표와 책상 위 단가표는 결국 같은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3화 빈칸을 묻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안건은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현실화 및 교육청 예산 반영'이었다. 교육청 관계자가 자료 화면을 띄웠다. 제철 과일과 신선식품 단가 상승률,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현장 부담 보고 건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박서연 의원이 화면을 짚었다.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이나 메인 메뉴가 아니라 과일이나 부재료 쪽에서 먼저 줄어듭니다. 아이들 눈에 잘 안 띄니까 그쪽부터 손대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게 매달 반복되면 학교가 알아서 버티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맞은편에서 이도현 의원이 말을 받았다.
"단가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예산이 한정된 이상 다른 항목과의 우선순위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 국이나 메인 메뉴가 아니라 과일이나 부재료 쪽에서 먼저 줄어듭니다."



도 봐야 합니다. 다만 이 자료를 보니, 이건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흐름 같습니다. 급식 식품비 기준 자체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다. 결국 다음 학기 교육청 예산안에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회의록에는 단가 인상률과 시행 시기 같은 숫자만 담담히 적혔다. 하지만 이 논의는 서윤이 필통 속에 있던 급식표를 바꿔나갈 실마리가 되었다.

4화 다시 과일 스티커가 붙은 수요일

다음 달 급식표 초안을 짜던 윤하는 단가표를 다시 펼쳤다. 지난달과 달리 과일 항목의 단가 기준이 조금 올라와 있었다. 윤하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수요일 칸으로 커서를 옮겼다. 윤하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 글자를 적어넣었다.

급식표가 인쇄되어 나눠지던 날, 서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급식표를 읽어 내려갔다. 수요일 칸에 '제철 과일'이라는 한 줄이 채워져 있었다. 서윤은 그 한 줄을 한 번, 두 번 다시 읽었다.

서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급식표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러다 필통에서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과일 스티커들을 꺼냈다. 수요일 마지막 줄이 비어 있던 지난 몇 주 동안, 붙일 자리가 없어 남아 있던 것이었다.

서윤은 그 스티커를 한 장씩 세어보았다. 넷. 비어 있던 수요일의 수만큼이었다. 서윤은 그중 하나를 다시 '제철 과일' 위에 겹쳐 붙였다. 그리고 남은 세 장을 다시 필통 안쪽에 넣었다. 이번에는 다시 붙일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박옥련 할머니는 평생 흐트러짐 없이 조용하고 품위 있게 사셨다. 큰소리 내는 법 없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절대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다 풀어놓지 못한 세월을 품고 계셨다. 딸 임명옥 씨는 그런 어머니 곁을 나눔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지키며, 어머니의 단호했던 뜻을 묵묵히 받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가 끝내 이루지 못한 바람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담담하게 어머니의 뜻을 대신 전한다.

글 강나은 **사진** 고평주

말없이 견딘 세월, 이젠 편히 쉬시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박옥련** 할머니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

1919년 전라북도 무주에서 태어난 박옥련 할머니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1941년 남태평양 라바울섬으로 끌려가 3년간 모진 고초를 겪었다. 섬을 벗어나기 위해 두 차례나 배에 올랐지만 계속되는 폭격과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다시 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함께 끌려갔던 50명의 여성 중 살아 돌아온 이는 단 2명뿐이었다.

임명옥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네댓 살 무렵이었다. 외숙모가 나서서 '위안부' 피해 사실 신고를 권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어머니는 외숙모를 만류했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그저 끌려가셨었다는 사실만 알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어머니의 지난 삶을 이해하게 되었죠."

말수가 적었던 어머니가 평생 홀로 안고 살아온 무게를, 딸은 그렇게 뒤늦게 헤아렸다.

단정하고 여성스러웠던 우리 엄마

박옥련 할머니는 1996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며 남은 생을 보내셨다. 서울에 나눔의집이 있을 당시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의 경기도 광주로 자리로 옮기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그 당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던 임명옥 씨는 초창기에 고생한 할머니들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때 어르신들은 너무나 가엾고 안타까워 더 잊지 못하겠어요. 정말로 고생만 하시다 가신 분들이에요."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박옥련 할머니 역시 2007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증거를 제시하라 한다면 "살아 있는 내가 증거"라고 말하겠다며 단호한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나눔의 집에서 함께한 세월

임명옥 씨의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반듯하고 예의를 중시하셨다.

"어른 다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 안 된다, 밥을 먹고 나면 얼른 그릇을 씻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뿐 아니라 박옥련 할머니는 임명옥 씨를 위해 명절이면 고운 색동옷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곱게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임명옥 씨는 나눔의 집 주방에서 할머니들의 식사를 책임졌다. 자신의 손맛에 익숙해진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드시기 편하도록 김치도 잘게 썰어드리며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던 이용수 할머니가 조카라 부르며 살갑게 대해 주었지만, 임명옥 씨는 오히려 자기 어머니만 챙기는 것처럼 비칠까 늘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 고생만 하다 가신
> 할머니들이 잊히지 않기를,
> 아픈 역사가
>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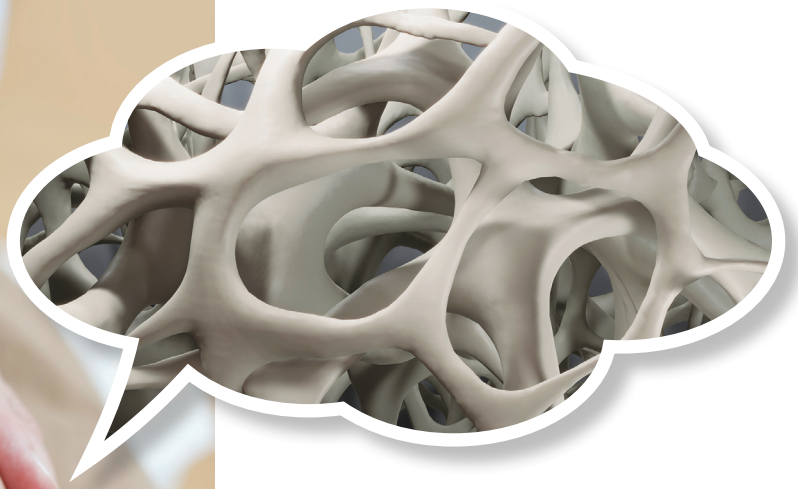
"다른 어머님들이 소외감 느끼실까 봐 우리 엄마를 위해 따로 해드린 건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2011년 5월 15일, 박옥련 할머니는 투병 끝에 아흔두 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간식을 챙겨드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는 힘없이 쓰러지셨다.

임명옥 씨는 어머니처럼 고생만 하다 가신 할머니들이 잊히지 않기를,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말없이 견뎌온 세월도, 단호했던 그 목소리도 모두 박옥련 할머니의 삶이었다. 이제는 박옥련 할머니가 그 무게를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한평생 염원하셨던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도 모르게 줄어드는 뼈의 힘

골다공증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피부가 달라지는 것처럼 뼈도 조금씩 변한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골밀도는 서서히 줄어들고 특별한 증상 없이 약해질 수 있다. 골다공증은 미리 검사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예방과 함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글 유현경

뼈도 나이를 먹는다

우리 몸의 뼈는 평생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젊을 때는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진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남성 역시 노화와 운동 부족, 흡연, 과음, 만성질환 등으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어 안심해선 안 된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가 성글어져 작은 구멍이 많아진 상태를 말한다. 건강한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벌집처럼 촘촘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 변화, 운동 부족 등으로 뼈의 양이 줄어들면 촘촘한 구조에 빈 공간이 점점 많아진다. 마치 스펀지처럼 뼈가 성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특별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고, 골절이 생긴 뒤에야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골다공증 전 단계, '골감소증'부터 살펴야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허리가 점점 굽거나 키가 줄어드는 경우, 이유 없이 등이 자주 아프다면 척추 압박골절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에서 가볍게 넘어졌는데 손목이나 엉덩이뼈가 부러지면서 처음 발견된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다. 골감소증이라는 전 단계를 거치는 만큼 골밀도 검사(DXA)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을 늦추고 건강한 뼈를 지킬 수 있다. 골감소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건강검진이나 골밀도 검사를 통해 발견한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칼슘·비타민 D 섭취, 적정 체중 유지 등은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골다공증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골감소증 단계에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골밀도 검사와 건강 습관으로 뼈를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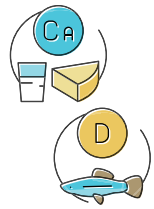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시간은 10~20분이고, 통증도 없다. 엑스레이보다 방사선량이 적어 부담이 덜하고, 허리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일정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검사를 지원한다. 자세한 대상은 건강검진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골다공증 예방은 특별한 약보다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치즈, 두부, 멸치,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다. 하루 20~30분간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운동도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반대로 흡연과 과음은 골밀도를 낮출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건강한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근육만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는 뼈가 튼튼해야 오래 걷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미리 검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오늘 지키는 뼈 건강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한 걸음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뼈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습관



- ✔ 칼슘과 비타민 D 충분히 섭취하기
- ✔ 하루 20~30분 햇볕 쬐기
- ✔ 걷기, 근력운동 꾸준히 하기
- ✔ 금연하고 음주 줄이기
- ✔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하기

이런 분은 골밀도 검사를 권합니다



- ✔ 폐경 이후 여성
- ✔ 65세 이상 고령자
- ✔ 부모 중 골다공증 병력이 있는 경우
- ✔ 키가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경우
- ✔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경험한 경우
- ✔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복용한 경우

골다공증의 진실

- ✔ 골다공증은 통증 없이 생길 수 있다.
- ✔ 남성에게도 생길 수 있다.
- ✔ 칼슘만 먹는다고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 ✔ 운동은 물론 비타민 D도 중요하다.





스마트폰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면 원하는 앱을 찾기 어렵다.
저장 공간이 줄고, 사용하지 않는 앱이 계속 작동하면서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다.
자주 쓰는 앱만 남기면 스마트폰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글 유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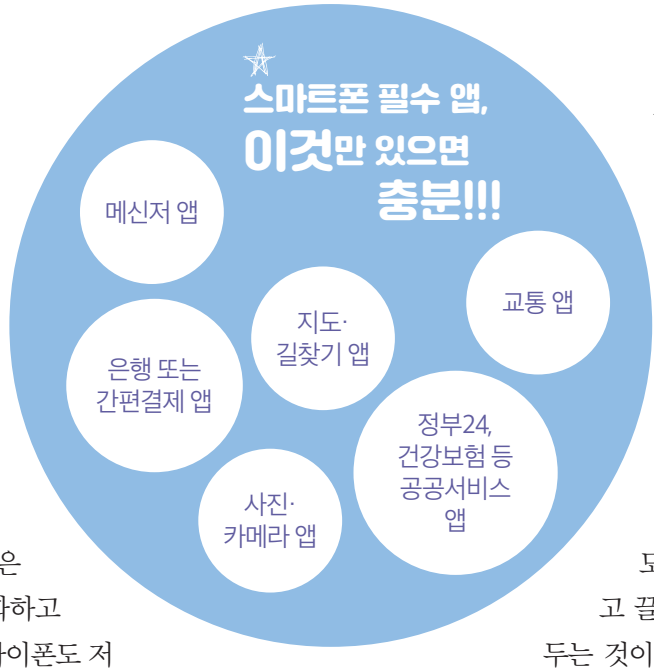
필요한 앱만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앱이 하나둘 늘어난다. 은행, 쇼핑, 배달, 게임, 사진 편집까지 이런저런 앱이 금세 쌓이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자주 쓰는 앱은 많지 않다. 메신저, 은행, 지도, 교통,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앱 정도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새 앱을 설치하기 전에는 정말 자주 쓸지 먼저 생각해 보자. 한 번만 쓸 앱이라면 설치하는 대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는 것이 좋다. 안드로이드폰, 보통 갤럭시는 'Play 스토어(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App Store(앱 스토어)'를 이용하면 된다. 문자나 인터넷 링크로 설치하라는 안내는 주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정리하세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앱은 정리해도 된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배터리를 더 빨리 소모시킨다.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정리하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배터리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안드로이드폰은 오래 사용하지 않은 앱의 권한을 자동으로 초기화하고 불필요한 실행을 줄여 준다. 아이폰도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줄이면 화면이 단순해지고 원하는 앱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앱이 너무 많아 헷갈리는 일도 줄어든다.



주의할 앱과 백업을 먼저 확인하세요

휴대폰을 구매할 때부터 들어 있는 기본 앱은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 안드로이드는 일부 시스템 앱을 삭제할 수 없고, 기종에 따라 사용 중지만 되는 경우가 있다. 아이폰도 일부 내장 앱은 삭제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 인증, 사진, 메모처럼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앱은 저장 방식을 살펴봐야 한다. 중요한 사진이나 메모가 있다면 앱을 삭제하기 전에 백업(컴퓨터에 별도로 데이터 저장하기)을 했는지 먼저 확인하자.

앱 건강검진도 해보세요

가끔은 설정 카테고리의 앱 목록이나 저장 공간 메뉴를 열어보자. 이름이 낯설거나 몇 달째 쓰지 않은 앱이 있다면 정리할 때다. 안드로이드폰은 사용하지 않는 앱을 따로 보여 주고, 아이폰도 저장 공간 화면에서 앱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앱이 필요 이상으로 카메라, 마이크, 연락처 등에 접근하도록 설정돼 있는지도 살펴보자. 필요하지 않은 권한은 차단하는 것이 좋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은 모두 설정에서 앱별 권한을 보고 끌 수 있다. 앱은 최신 버전으로 두는 것이 좋으며, 업데이트 시 보안 수정과 문제 개선이 포함될 수 있다.



주막에서 카페까지

쉼의 변천사

사람은 오래 걷기 위해 쉬는 법을 배웠다. 어제는 주막의 평상이었고, 오늘은 카페의 창가다.
잠시 걸음을 멈추는 공간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글 유현경 일러스트 챗GPT







고된 길을 가던 이들의 쉼터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다.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바쁘게 달려오던 시간이 잠시 멈추어 나를 기다려주는 듯하다. 현대인에게 카페는 음료를 마시는 곳을 넘어 하루의 쉼표를 찍는 공간이 되었다. 그 쉼표를 딛고 우리는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생각을 정리한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 카페와 비슷한 역할을 한 곳이 있었다. 먼 길을 걷던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던 주막이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사람은 언제나 쉬어 갈 공간이 필요해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모든 길에 처음부터 주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막이 드문 길에서는 큰 나무 그늘이나 정자, 사찰, 나루터가 잠시 쉬어 가는 쉼터가 됐다. 관청에서 운영한 역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와 역졸이 말을 갈아타거나 숙박하던 시설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친척 집이나 마을 사랑방, 절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 일도 흔했다.
걷는 여행은 고된 일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성인 남성이 하루 평균 30~40리(약 12~16km), 많게는 70~80리(약 30km)를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길은 대부분 흙길이었고, 비가 오면 질척거렸으며, 여름에는 뙤약볕을, 겨울에는 찬 바람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그래서 길 위에서 만나는 주막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허기를 달래고, 다리를 쉬며,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는 소중한 쉼터였다.

주막에는 세상이 모였다

조선시대 전국의 큰길과 나루터, 장터 주변에는 주막이 자리했다. 장을 보러 가는 농부와 보부상,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선비,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와 역졸까지 다양한 사람이 이곳을 거쳐 갔다.
주막은 술을 파는 곳이면서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갈 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상 소식을 나누는 역할까지 했으니 지금의 식당과 여관, 휴게소를 합쳐 놓은 셈이다.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 '주막'에는 이런 풍경이 생생히 담겨 있다. 술상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 국밥을 먹는 나그네, 짐을 정리하는 보부상이 한 화면에 등장한다. 주막은 신분과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이는 보기 드문 공간이었다.
또 신윤복의 '주사거배' 역시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



길 위에서 만나는 주막은
허기를 달래고 다리를 쉬며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얻는 소중한 쉼터였다.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주막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을 넘어 사람과 정보가 오가던 생활공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여행기에도 주막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길을 떠나며 여러 주막에 머물렀던 경험을 기록했고, 정약용 역시 유배길에 들렀던 주막의 풍경을 글로 남겼다. 주막에서는 술보다 이야기가 먼저 오갔다. 장터 물가와 농사 소식, 나라 안팎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가 전하는 정보처럼, 당시에는 사람의 입이 가장 빠른 소식통이었다.



한국인의 휴식 문화는
주막에서 다방으로, 다방에서 카페로
모습을 바꾸며 이어져 왔다.



정약용은 유배와 지방 순행 과정에서 남긴 기록에서 여러 차례 주막에 머무르며 식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을 적었다.
당시 주막은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들르는 길 위의 쉼터였다. '주모'라는 호칭도 주막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됐다. 주모는 주막을 운영하는 여성으로, 여행객에게 음식과 술을 내고 때로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았다. 퇴기 출신이 많았고, 격이 낮은 궁녀나 나인들이 퇴궁하거나 궁에서 쫓겨나 주막을 차리는 경우도 있었다.

차 한잔의 여유, 커피 한잔의 여유

주막에서는 단순히 술과 음식만 팔지 않았다. 사람들은 주막에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소식을 들으며 잠시 쉬어 갔다.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물며 쉬어 갈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비록 주막은 사라졌지만, '잠시 쉬어 가는 공간'이라는 역할만큼은 시대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1970~1980년대에는 다방이 주된 만남의 장소였다. 자장면을 먹은 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약속의 마무리였고, 음악다방에서는 신청곡이 흘러나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방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동네 카페로 바뀌었다.
오늘날 카페는 훨씬 다양한 역할을 한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도 한다. 노트북을 펼쳐 일하는 사람도 많고, 여행객은 잠시 다리를 쉬며 다음 일정을 계획한다. 무료 와이파이와 콘센트, 편안한 의자는 카페를 또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었다.
옛날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길동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날에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일상을 나눈다. 마시는 음료는 달라졌지만, 사람을 만나고 잠시 숨을 고른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윤복의 '주사거배'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의 '주막' ©국립중앙박물관

공간은 달라져도 쉼의 의미는 같다

주막에는 평상이 있었고, 카페에는 푹신한 의자가 있다. 흙길을 걷던 나그네는 막걸리와 국밥으로 허기를 달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커피 한 잔으로 잠시 여유를 찾는다.

다만 쉬는 방식은 조금 달라졌다. 주막에서는 낯선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길을 묻고, 장터 소식을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반면 오늘날 카페에서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펼쳐 업무를 보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지만,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점은 여전하다.

한국인의 휴식 문화는 주막에서 다방으로, 다방에서 카페로 모습을 바꾸며 이어져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10만 곳이 넘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일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페를 찾는다.

카페 형태도 다양해졌다. 동네 작은 카페부터 로스터리 카페, 북 카페, 반려동물 동반 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 커피를 마시는 곳에서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중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휴식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조선의 나그네는 고단하게 길을 걸어온 후 주모에게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라고 말했을 것이다. 반면 바삐 일하다 카페를 찾은 현대인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바리스타에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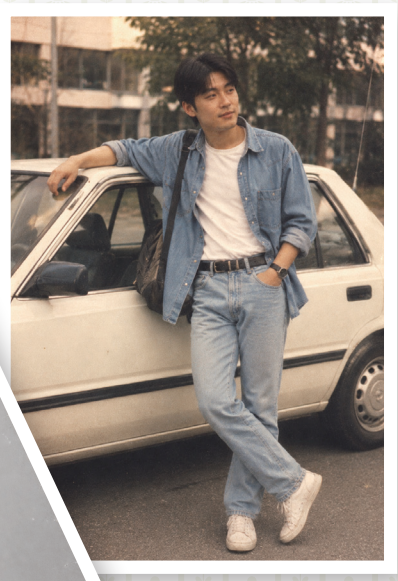
한 잔이 주는 휴식. 시대는 달라졌지만, 하루를 살아낸 뒤 잠시 쉬어 갈 곳을 찾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옷으로 시대를 말하다

**라디오에서는 최신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나팔바지·청재킷·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오갔다.
사람들은 서로의 옷차림을 보며 유행을 배웠고, 거리 자체가 패션쇼 런웨이였다.
그 시절 거리를 메운 청춘들의 패션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글 유현경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나팔바지가 거리를 휩쓸던 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유행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릎 아래로 넓게 퍼지는, 일명 나팔바지였다. 걸을 때마다 펄럭이는 바짓단은 멋쟁이의 상징이었고, 옷 수선 가게에 바짓단을 넓혀 달라고 맡기는 일도 허다했다.

여성들의 미니스커트도 시대를 상징하는 패션이었다.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하며 화제를 모았고, 그 모습을 본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단속할 만큼 사회적 관심도 컸지만, 미니스커트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젊음과 개성의 표현이었다.

청재킷과 청바지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재킷은 자유와 젊음의 상징이었고, 바랜 청바지와 함께 입는 '청청 패션'은 누구나 따라 하고 싶은 스타일이었다.

또 하나의 인기 아이템은 뽀빠이와 미키마우스 티셔츠였다. 캐릭터 의류가 흔하지 않던 시절, 이런 티셔츠 한 장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유행한 청재킷과 캐릭터 티셔츠가 지금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 세대의 청재킷은 MZ세대의 오버핏 데님으로, 뽀빠이 티셔츠는 다양한 캐릭터 티셔츠로 모습을 바꾸며 새로운 유행을 이어가고 있다.

독자 이벤트



내 인생 첫 브랜드를 찾습니다!

내 손으로 처음 사 신은 운동화, 청바지, 가방….
그 시절 가장 아끼던 브랜드와 그 옷을 사서 입었던 특별한 순간을 보내주세요.
추억의 브랜드 사연을 선정해 다음 호에 소개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 성함과 주소를 함께 기재해 보내주세요.

멋을 낸 날에는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새 옷을 입으면 어디론가 나가고 싶기 마련이다. 1980년대 청춘에게 인기 있는 약속 장소는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신 가요가 흘러나오고,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며 하루를 보냈다. 서툴러 연신 넘어져도 음악에 맞춰 원을 그리며 달리던 즐거움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즐기고 나와 경양식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럴듯한 데이트 코스였다. 돈가스나 함박스테이크, 크림수프로 구성한 세트에 후식 커피를 제공하는 경양식집은 특별한 날 찾는 근사한 공간이었다. 경양식집 데이트가 있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롤러스케이트장 대신 복합문화공간이나 팝업스토어, 감성 카페가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떠올랐다. 선호하는 공간은 달라졌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멋지게 보이려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정장을 입던 시대에서, 나를 입는 시대로

1990년대 초는 또 다른 거리 풍경이 펼쳐졌다. 남성 직장인들은 어깨 패드가 들어간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여성은 투피스 정장과 블라우스, 웨이브 머리로 전문직 이미지를 완성했다. 당시 패션은 개성보다 사회인의 '품격'과 '단정함'을 보여 주는 수단이었다.

오늘날 거리의 풍경은 훨씬 다채롭다. 운동화에 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이 늘었고, 청바지와 스니커즈 차림도 낯설지 않다. 학생들은 와이드 팬츠와 후드티, 오버핏 셔츠를 즐겨 입고, 액세서리와 운동화로 개성을 표현한다.

패션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졌다. 부모 세대가 잡지와 TV 속 연예인을 따라 하며 유행을 좇았다면, 요즘 세대는 퍼스널 컬러와 체형 진단을 통해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을 찾는다. '유행이라서 입는 옷'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AI를 활용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거나 SNS에서 스타일링 정보를 얻는 것도 새로운 문화가 됐다.

거리 풍경은 시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거울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옷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부모 세대는 잡지와 TV를 보며 유행을 배웠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SNS와 숏폼 영상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난다. 유행을 접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더 멋있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언젠가 지금 유행하는 후드티와 와이드 팬츠도 또 다른 세대에게는 '그 시절 패션'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유행한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첫 출근을 하던 설레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바카


통학길이 안전했으면.
경기도의회
교통이 편리했으면.
31개의 지역, 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결정!
농업도 함께 발전했으면.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김포
포천
안성
수원
통학길이 더 안전했으면…
농업도 함께 살펴주세요.
1


OO선거구 지역 상담소
우리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됩니다.
2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제소방위원회
회의 시작 5분 전입니다.
우리 회의실 맞죠?
3


현장 의견도 함께 검토합시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의회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쉽게 풀어낸 웹툰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의회의 역할을 전합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

경기도 축제와 전시



부천 축제

만화와 웹툰의 모든 즐거움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웹툰 기획 전시와 인기 작가와의 만남, 특별 애니메이션 상영 등 작품과 창작자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창작 굿즈를 둘러보는 만화 마켓과 체험·놀이 공간, 세계 각국의 코스튬 플레이어가 참가하는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도 흥미를 더한다.

기간 2026. 9. 18.~9. 20.
장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요금 5,000원
문의 032-310-3071
홈페이지 bicof.com

고양 축제

야외 공연장이 된 호수공원

고양호수예술축제



서커스와 마술, 공중 퍼포먼스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연이 공원 곳곳에서 펼쳐지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해가 지면 호수의 밤을 밝히는 야간 특별 공연과 불꽃놀이가 가을밤의 낭만을 더한다. 산책하듯 공연장을 오가며 자연과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축제다.

기간 2026. 9. 18.~9. 20.
장소 고양 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광장 일원
요금 무료
문의 031-960-9795, 9796
홈페이지 gylaf.kr

시흥 축제

갯골로 떠나는 생태 나들이

시흥갯골축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축제가 열린다. 염전과 습지, 갈대밭을 배경으로 생태 체험과 공연, 놀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일회용품과 쓰레기통 사용을 줄이는 '탄소 제로, 쓰레기 제로' 운영과 차 없는 축제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도 일깨운다.

기간 2026. 9. 18.~9. 20.
장소 시흥 갯골생태공원
요금 무료(일부 체험 프로그램 유료)
문의 031-310-2932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gfestival

과천 축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공연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



국내외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열린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1997년 '세계마당극큰잔치'로 출발한 국내 최초의 거리극 축제로 야외극과 거리극, 서커스, 신체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공연을 관람하며 예술가와 생생하게 호흡하는 것이 매력이다.

기간 2026. 9. 18.~9. 20.
장소 과천청사 시민광장 일원
요금 무료
문의 02-2009-9735
홈페이지 gcfest.or.kr

안산 축제

포도의 풍미와 대부도의 가을 정취가 한자리에

안산 대부포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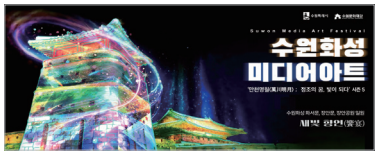
서해안의 풍부한 해풍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대부포도를 맛보는 안산의 대표 농산물 축제다. 농가가 정성껏 재배한 포도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직거래 장터와 신나는 포도 밟기 체험이 마련된다. 축하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뿐 아니라 대부해솔길 걷기와 마라톤 등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기간 2026. 9. 19.~9. 20.
장소 안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
요금 무료
문의 031-481-2318
홈페이지 korean.visitkorea.or.kr/kfes

수원 축제

세계유산 수원화성, 빛으로 다시 피어나다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빛과 영상,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거대한 미디어아트 무대로 다시 태어난다. '새빛동락(同樂): 수원화성,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화성 축성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빛으로 풀어낸다. 화서문에서는 영상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초대형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다.

기간 2026. 9. 19.~10. 6.
장소 수원화성 화서문·장안공원 일원
요금 무료
문의 031-290-3622, 031-5191-3084
홈페이지 swcf.or.kr/?p=317

파주 전시

경계를 넘어 만나는 새로운 시선

선 너머 선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기획전 〈선 너머 선〉은 자연과 인간, 아날로그와 디지털처럼 익숙한 경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대미술 전시다. 김명득, 문보리, 박형렬, 배종헌 등 네 작가가 서로 다른 매체와 표현으로 경계 너머의 관계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참여 작가들의 예술적 문법을 따라가며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새로운 관계와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

기간 2026. 7. 3.~9. 27.
장소 파주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요금 3,000원(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031-942-4401
홈페이지 whiteblock.org

광명 전시

예술로 이은 전통과 현대 예술

전통과 환영



종가의 유물과 현대 작가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며 전통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한다. 조상의 삶과 예가 담긴 유물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의 고민과 내면을 겹쳐 놓으며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방식을 보여 준다. 과거의 문화유산과 오늘의 예술이 한 공간에서 만나 시간의 흐름과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기간 2026. 7. 10.~9. 19.
장소 광명 충현박물관
요금 박물관 입장료 성인 1만 원, 어린이·청소년 5,000원
문의 02-898-0505 **홈페이지** chunghyeonmuseum.kr

성남 전시

팝아트 감성을 만나는 강렬한 회화

캐서린 번하드 특별전



피카츄와 핑크 팬더, 나이키 등 대중문화 속 익숙한 이미지를 자유로운 붓질과 강렬한 색채로 재해석한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의 초기 인물화부터 정글과 패턴 회화, 대중문화 아이콘을 소재로 한 최근 작품까지 다섯 섹션으로 구성된다.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을 통해 창작 과정과 독창적 예술 세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기간 2026. 7. 3.~9. 6.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요금 성인 1만 5,000원, 청소년 1만 2,000원, 어린이 1만 원
문의 031-783-8142 **홈페이지** museum.snart.or.kr

수원 전시

사람과 함께 걸어온 '소' 이야기

소, 우리 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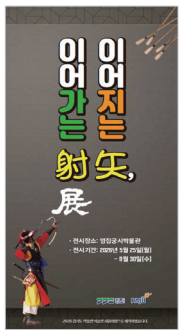
논밭을 갈고 짐을 나르던 농우부터 집안의 귀한 재산으로 여기던 소, 오늘날 한우 산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변화를 옛 기록과 자료로 소개한다. 혈통 보존과 품종 관리, 탄소 저감 등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스탬프·디지털 체험이 마련돼 어린이와 관람하기에도 좋다.

기간 2026. 7. 7.~9. 27.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요금 무료
문의 031-324-9114~91155
홈페이지 namuk.or.kr

파주 전시

활과 화살에 담긴 전통을 만나다

이어지는 矢, 이어가는 射



제목의 '시(矢)'는 화살을, '사(射)'는 활을 쏘는 행위와 문화를 뜻한다. 전시에서는 화살의 구조와 제작 재료, 용도별 종류와 역사적 의미, 화살의 구조와 제작 과정, 파주 지역 활터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궁시 문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활쏘기와 제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더욱 흥미롭다.

기간 2026. 5. 25.~9. 30.
장소 파주 영집궁시박물관
요금 박물관 입장료 성인 4,000원, 청소년 3,500원
문의 0507-1357-6800
홈페이지 arrows.kr

양평 전시

가구를 넘어 예술이 된 디자인

가에타노페세 가구전



페세는 반복과 획일성을 거부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의자와 소파, 테이블을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확장했다. 대표작 '업 5&6' 체어를 비롯해 의자와 소파, 테이블 등 60여 점을 통해 그의 독창적인 디자인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기간 2025. 9. 13.~2026. 9. 27.
장소 양평 이함캠퍼스
요금 1만~2만 원
문의 031-773-7888
홈페이지 ehamcampus.com

평택 공연

거장의 지휘로 빚은 깊은 울림

정명훈 & KBS교향악단 with 김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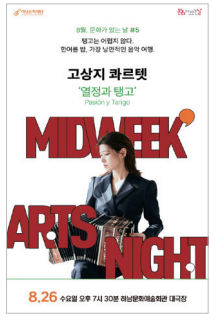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과 KBS교향악단, 피아니스트 김세현이 함께하는 특별한 클래식 무대가 평택에서 열린다. 정명훈의 지휘 아래 KBS교향악단의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연주가 펼쳐진다. 여기에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는 김세현의 피아노가 더해져 세대와 음악적 개성이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를 완성한다.

기간 2026. 8. 26.
장소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
요금 1만~8만 원
문의 031-669-0900
홈페이지 pccf.or.kr

하남 공연

반도네온이 들려주는 뜨거운 탱고의 선율

고상지 콰르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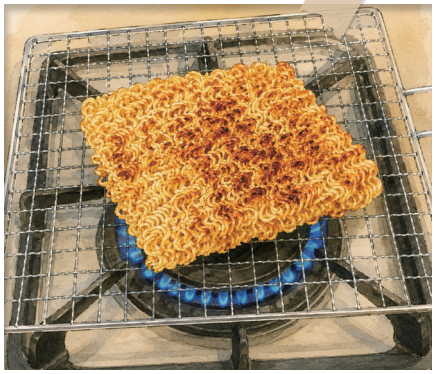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가 이끄는 고상지 콰르텟이 아르헨티나 탱고를 기반으로 클래식과 재즈, 영화음악까지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선보인다.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대표작부터 고상지의 자작곡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정과 감성을 함께 만날 수 있다.

기간 2026. 8. 26.
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요금 1만 원
문의 031-790-7979 **홈페이지** hnart.or.kr

독자 솜씨 마당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298호에도 소식지를 읽고 보내주신 따뜻한 소감과 독자 참여 코너 '추억의 사진'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 사연 한 줄마다 삶의 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함께 기억을 나눠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시절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



부숴 먹던 행복 한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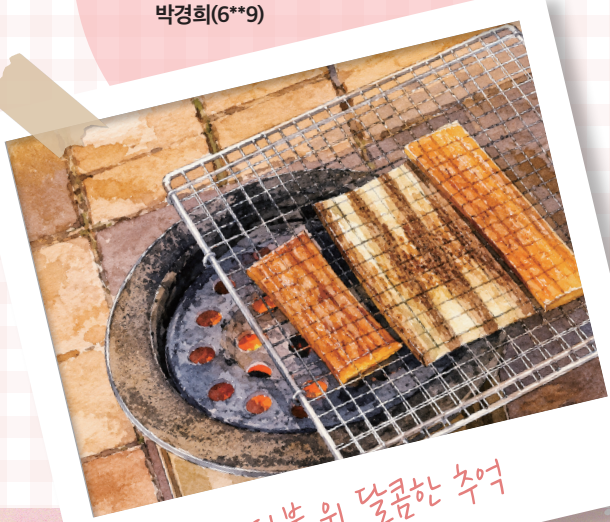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기도 하고, 부순 라면을 마가린에 볶은 뒤 설탕을 넣어 라면땅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자주 찾던 추억의 간식입니다.
반지원(00)**

어머니께서 누룽지를 바삭하게 말린 뒤 튀겨서 설탕을 뿌려주시곤 했습니다.
문득 그 달콤하고 고소했던 맛이 그리워집니다.
이정석(04)**



어머니가 남겨 준 달콤한 간식

어릴 적 쫀드기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쭉쭉 찢어 먹기도 하고, 연탄불에 구워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달콤한 꿀이 들어 있는 꿀쫀드기도 아직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박경희(69)**



연탄불 위 달콤한 추억

독자 추억 사연

경기도 시흥시 연꽃테마 파크를 산책하다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만났습니다. 저어새를 바라보며 청정한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박원철(62)**



저어새가 머문 여름 풍경



여름을 천천히 걷다

경기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에서 여름을 만났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롭게 산책하며 마음까지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자연이 가까이 있는 경기도가 참 좋습니다.
최은숙(82)**



다시 안아보고 싶은 세 살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를 보니 문득 생각이 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 넓은 잔디밭을 아장아장 걷던 세 살 아이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품에 안아보고 싶습니다.

박나현(34)**

2015년 4월 18일, 큰아이가 아홉 살이던 해의 추억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빠와 함께 세발자전거를 졸업하고 두발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곧바로 동생을 뒤에 태우고 운동장을 몇 바퀴나 신나게 돌았는지 모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환하게 웃던 그때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학구(42)**



두 바퀴 위에 자라는 시간



앨범 속 어린이날

앨범에는 '1997. 5. 5. 경기도박물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제는 모두 훌쩍 자라 각자 가정을 이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그립기도 하지만,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윤재열(19)**

맑고 시원한 오남 팔현계곡에서
모두가 물속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발을 담그고 한참을 찾던 끝에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지금 봐도
웃음이 나는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이선희(63)**



계곡물이 품은 웃음



꽃처럼 빛나던 봄소풍

중학생 시절 봄소풍으로 수원 삼풍농원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풀장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참 발랄해 보이네요. 친구들아,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박정숙(17)**

독자 이벤트

추억을 보내주세요

추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 한 장면을 들려주세요.
사진 한 장, 짧은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이곳에서 다시 따뜻해집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와 사진 중 일부는 다음 호 '독자 솜씨 마당'에
소개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접수 마감: 10월 2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구독
#문자
#신청



경기도를 바꾸는 첫걸음

경기도의회의 최신 소식을 담은
의정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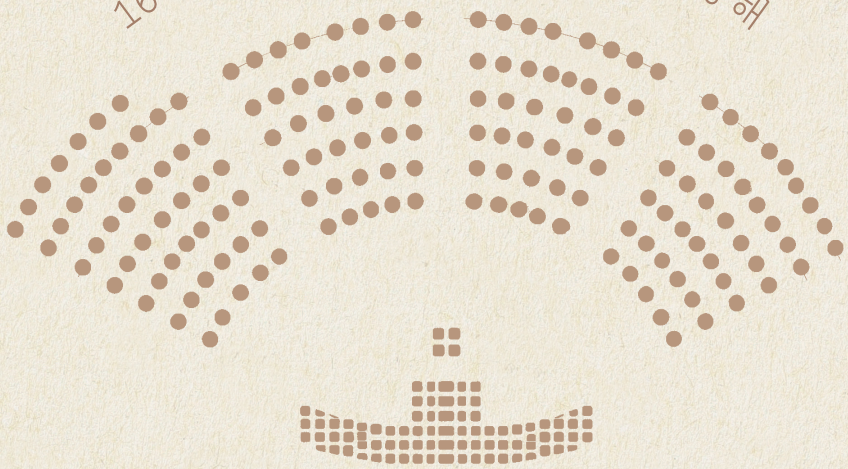


「지방의회법」 제정,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출범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167명의 도민 대표, 하나의 경기도를 향해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29206
www.fsc.org

PRINTED WITH SOY INK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산림보호를 위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듭니다.